

백수로 소비자 82%는 홈쇼핑 구입

소비자단체협 상담 1916건 분석...대부분 반품·환불 내용 일부 신체 이상 호소...정확한 부작용 파악·전액 환불 촉구

‘가짜 백수’ 논란으로 홈쇼핑 업계 환불 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백수를 구입한 소비자 82.3%가 홈쇼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쇼핑사 6곳의 소비자 피해대책이 발표된 지난 11일~12일 접수된 백수 관련 상담 1916건을 분석한 결과 82.3%의 소비자가 홈쇼핑을 통해 백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홈쇼핑이 47.5%로 가장 많았다. 롯데홈쇼핑 12.0%, 현대홈쇼핑 9.3%, CJ홈쇼핑 6.2%, GS홈쇼핑 5.2%, NS홈쇼핑 1.8% 순이었다. 나머지 18.1%는 구입 업체를 밝히지 않았다.

상담 대상이 된 백수 제품은 내츨엔도텍의 백수오공과 백수오공이 41.8%로 가장 많았고 서흥의 백수오 시크릿이 2.6%, 천호식품의 황후 백수오가 0.8%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상담 내용은 제품 반품·환불에 대한 내용이 70.2%로 가장 많았다.

상담 중 8.3%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에는 간기능 손상(15건),

소화기 장애(13건), 두통 등 통증 발생(8건), 자궁 관련 질환(8건), 피부질환(5건)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신체적 이상증세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전문가 등 각각의 의견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부작용을 파악해 그 보상을 강구하고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 근거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가운데 가짜 백수로 신체적 이상 증세를 직접 느끼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NS홈쇼핑을 제외한 주요 홈쇼핑 업체는 미흡취 물량만 환불해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판매처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내츨엔도텍 '백수오공'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주의

결제 대금 분납서비스

통장잔액 있어도 이월 수수료

신용카드 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일명 '리볼빙' 서비스가 높은 수수료로 불만을 사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와 같은 수수료가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았고,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은 27.4%, '일방적인 수수료를 변경'은 2.1% 등이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 수수료율은 은행·보험사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6개 신용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는 1년 12.49~25.46%에 달한다.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청구서에는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표시돼 있는 반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 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료숙박권 제공·홍보대사 선정으로 현혹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30대 남성 최다

한국소비자원 2086건 분석

공정위, 3개 업체 행정조치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1322건(63.4%)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사한 피해를 수년에 걸쳐 두 세차례 반복적으로 당한 사례는 338건(16.2%)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남성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동부레저개발(씨월드 리조트), ㈜올레엔유(에버리조트), ㈜진원(에버리조트) 3개 업체에 과태료와 과징금 총 7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유사콘도회원권을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요 구해야 한다”며 “장기계약인 경우 한 번된 행사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마트폰 금융앱 이용자 만족도 미흡

간편 잔액조회 등 편의 갖춰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금융업체들의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0년 722만명에서 2011년에는 2258만 명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2년 3273만 명, 2013년에는 3752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00만명(405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79.4%로, 이들 중 절반 이상(2500만 명)이 금융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금융사들은 한층 진화한 앱을 선보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쉽고 빠른 조회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한 S뱅크 미니'를 비롯해 18개의 앱 서비스(이하 안드로이드 기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속하고 간

편한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화·이체 중심의 서비스인 'KB스타뱅킹 미니' 앱 등 9개 앱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7개, 하나은행은 6개의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앱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디지털 광고 전문가 DMCM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내려받은 금융·보험사 관련 앱의 삭제율은 12%로, 모바일 앱 평균 삭제율(39.8%)보다 낮았다.

그러나 앱에 대한 만족도(44.8%)는 전체 평균(49.7%)보다 떨어졌다. 금융 앱에 대한 충성도는 일반 앱에 비해 눈에 띄게 높지만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앱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개선할 여지가 많다”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잔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갖춘 앱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에 보험은 여전히 어렵다

보험연구원 1200명 조사

이해도 평가 평균 61.7점

소비자들의 보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과 이해량 연구원은 최근 펴낸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이라는 보고서에서 “보험 이해도 평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7점”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실문조사는 금융 전반에 관한 이해도 평가와 보험 이해력 평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복지,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등 금융 개념을 설명하는 질문에 정답을 고른 비중은 각각 58%, 52%, 57%였다.

한국의 정답률은 차례로 82%, 78%,

71% 정답률을 보인 독일보다 낮았다. 미국 소비자들의 정답률도 각각 78%, 65%, 53%로 나타나 위험 분산을 제외한 답변에서 한국보다 높았다.

보험 이해력 평가에서도 정답률은 높지 않았다. 변액보험상품,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에 정답을 고른 응답자의 비중은 47.3%, 42.3%로 조사됐다.

자신의 금융 이해력 수준을 평가하라는 질문에 '낮음'이라고 답한 비중은 44.5%였다. '보통'은 45.1%였고 '높다'는 답은 7.3%에 그쳤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험과 은퇴 계획 설계 관련 내용을 도입하는 등 학교에서부터 소비자의 금융과 보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해를 돕도록 복잡한 상품 설명서를 핵심만 담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보험 판매자도 상품 설명을 강화해 개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1/2 (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울 대리셔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방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스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광산 장덕동 4층중 3층 62평 수원롯데마트대로변 매매가 2억5천
- ② 서구 상무지구 정면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 ③ 서구 생촌동 원룸 11평 운전역 3분 보200만 월25만 매매가 3억500만
-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9백 매매가 2억
- ⑤ 수원지구 모야골7평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2억5천
-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 APT, 24평 보 1천 월 60만 가차점 매매가 1억1천500만
-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5억 월 50만 매매가 9000만
-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보300만 월30만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평수 : 90평(분할가능)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임주가능, 내부시설완비 시비약간있음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062-527-7600
010-7384-7800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임대

1. 605호 → 19평 보300만 월33만
2. 606호 → 24평 보5백 월 50만
3. 607호 → 13평 보300만 월 33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화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근린 상가)

- ①서구 공효동 7층상가 (235㎡) 김장기 6억5천/최저가12억9천유용상가
- ②북구 본촌동 민상빌딩(3층중1층 (538㎡, 272㎡, 18㎡) 김장기 14억/최저가9억9천(1층4단)
- ③북구 중흥동 배나스컨데(10층중1층 (2003㎡, 건45.96㎡) 김장기12억3천/최저가1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신구 소촌동 (토400㎡, 건294㎡)김장기3억7천/최저가13억(세차장카센터)
- ②서구 영동 (180.5㎡, 2529.2㎡)김장기13억3천/최저가12억3천(2층건물/1층상2층주택)
- ③북포 신정동 (토63.75㎡, 건199.2㎡) 김장기1억3천/최저가17천100만 (3층건물/기중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근린 시설, 통건물)

- ①나주송월동(복합상가건물, 예식장) (토8474㎡, 건11735㎡)김장기152억/최저가168억
- ②전주연신구호사동 (토502.453㎡, 건589.083㎡)김장기25억/최저가13억(3층상가건물)
- ③광일시중동 (토767㎡, 23276.78㎡) 김장기126억/최저가1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신구하남(공장 (토174.3㎡, 22635.72㎡) 김장기14억/최저가16억9천
- ②북구 중흥동(토300㎡, 건1235.92㎡)김장기11억/최저가16억2천 (6층모텔)
- ③북구 칠성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김장기10억/최저가10억
- ④광신구 장복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8114.46㎡) 김장기36억/최저가129억
- ⑤광신구 황계동(무인점 (토1522.5㎡, 건1999.65㎡) 김장기134억/최저가1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⑥강원 고성시(화펜션 (토13885㎡, 2887.16㎡) 김장기43억/최저가18억 (펜션바다근처 건물 깨끗 시설 좋음(특수물건)

★ 경매현장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직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수원동, 법원)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1) 경매교육개강(수원지구 오픈) (엔피엘+토지보상 경매)
- 2) 경매실전교육(기분+실전위주)

- ① 오전반
- ② 오후반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받으면서 수익창출 가능

010-7384-7800
062-527-7600